# 조계종 여성불자회, 지역·계층·직능별 전국 조직으로

## 포교원, 6월 8일 창립준비 공청회

### 조직화 계획 발표 · 방향성 모색
### 김응철 교수 · 송지희 기자 발제
### 선업 스님 "대사회법인 설립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은 6월 8일 '조계종 여성포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준비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조직계획을 밝혔다.

조계종이 새롭게 창립할 전국여성불자회는 교구 · 직능 중심의 전국 조직으로, 향후 종단 외호와 여성인권 · 교육을 넘어 생태 · 생명 운동부터 지역현안까지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는 종단 대표 포교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6월 8일 '조계종 여성포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준비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조직계획을 밝혔다. 특히 공청회에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와 本紙 송지희 기자가 참석해 각각 '여성포교조직의 발전 방향'과 '한국불교여성포교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해 방향성을 제시했다.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구성취지와 운영방안'을 통해 조직 출범과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선업 스님은 "전국여성불자회는 종단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의 전국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각 교구별 여성조직 활성화를 통해 교구본사와 연계한 종합적인 지역 전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다"며 "특히 지역별, 계층별, 직능별로 세분화된 여성불자들의 활동을 종단적으로 조직화해 전국구 전법역량을 공유하는 가운데 대사회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재는 포교원장이, 상임지도법사는 포교부장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회장단은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운영위원회는 각 교구별 2인, 분야별 조직대표 2인으로 구성된다. 종단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제반사항은 종령으로 제정하며 보다 활발한 대사회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법인 구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발기인에 참여한 여성불자는 1095명으로, 향후 교구(지역)위원회와 직능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인 조직화를 통해 활동역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구위원회는 교구별 발기인 20여 명으로 구성되며, 직능위원회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직능별 단체를 중심으로 종무원, 언론인, 정관계, 포교사,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구성된다. 단체별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표성을 갖추도록 하고, 종단과의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앞서 本紙 송지희 기자는 '한국불교 여성포교 흐름과 전망' 주제 발제를 통해 1922년 창립했던 조선여자청년회를 시작으로 지난 100년간 활동했던 불교 여성단체들의 현황과 행보를 짚어 눈길을 끌었다.

송 기자는 "100년 동안 적지않은 수의 불교여성단체들이 창립하고 운영됐지만 계승과 지속성에 아쉬움을 남긴다"며 "종단과 여성불자들의 상호노력을 기반으로, 기존 단체들의 발자취를 되짚고 단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롭게 창립하는 여성포교단체가 현대에 맞는 새로운 조직과 활동목적, 방향성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기자는 특히 "그동안의 종단 포교종책과 여성단체들의 활동흐름을 살펴볼 때, 한국불교계는 여성포교에 너무나 무관심했다고 보여진다"며 "여러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성단체들이 교단 유지와 운영을 지원해 온 형태로 보이며, 현재까지 교단 차원에서 여성포교에 각별하고 지속적인 원력을 갖고 지원한 사례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종단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신행과 보시 · 봉사를 넘어선 현대사회에 맞는 여성불자 역할 모색 △여성불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리더 발굴과 양성 △불교계 전반의 젠더의식 개선 노력 등을 주문했다.

김응철 교수는 '여성포교조직의 발전 방향' 주제발제에서 "하향식 조직으로 출범해 상향식 운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위조직이 시군구읍내 별 세부적으로 만들어지고 분화하는 형태로 발전 ·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문화가 안착돼야 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리더를 발굴해 자격과 역할을 함께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체적인 동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청년전법단지도법사 효석 스님이 '사부대중 역할 속 여성재가불자의 위상'을, 박해덕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장이 '나는 왜 여성포교활동가로서의 길을 가나', 유경숙 전국불교연합합창단장이 '전국단위 포교조직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우리 종단은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을 통해 한국 여성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오늘 공청회는 한국여성불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이제 막 골격을 만들어 낸 전국여성불자회의 뼈와 살을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 법화종, 총본산 안정사 보존 결의문 채택

## 6월 8일 창종법회서 전체 법화종도 결의

### "해종 · 범법행위자들 불법증여 허가한 경남도 · 통영시 규탄"
### 소송서 불법행위 이미 인정
### 처분일체 취소 · 재발방지 촉구


법화종 총본산 안정사 전경.

법화종도들이 총본산 안정사 보존계승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종 · 범법행위자들의 불법증여 행위를 허가한 경상남도와 통영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자격 없이 안정사를 무단점거 중인 이제열(前 승현 스님) 씨 등이 자행한 안정사 부지 증여행위가 법원 판결에 의해 불법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법화종(총무원장 관료)은 6월 8일 '법화종 대표종찰 경남 통영 안정사를 지키자' 제하의 법화종도 결의문을 채택했다.

법화종은 결의문에서 "원효선사가 창건한 전통사찰 안정사는 우리 법화종도들에게는 큰 자긍심을 갖게 하는 총본산이자 대표종찰로, 보물을 비롯한 수천점의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라며 "때문에 늘 삿된 무리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표적이 되어왔고 2020년에는 전과자와 해종세력들에게 점거당해 사찰의 유일한 진입로를 포함한 부지가 편법 · 불법 증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화종은 "이러한 해종행위와 범법행위가 가능했던 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남도, 통영시가 증여를 허가하고 담보제공 허가까지 고려하는 참담한 행정을 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정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 행정처분 취소나 범법행위자들을 고발하지 않고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이같은 행정기관의 무능과 방관 속에 범죄자들은 안정사를 탈종시키려는 시도까지 감행했으며, 법화종은 종단의 상징과도 같은 천년고찰을 잃을 위기에 처한 데 이어 안정사는 유사포교당을 통해 혹세무민하는 범죄자들의 범행도구로 전락했다.

법화종은 "삼보정재를 유린하는 범죄자들의 기망에 농락당한 관계부처는 무능을 넘어 미필적 고의를 띤 불교괄시, 종교편향에 가깝다"며 문체부와 경남도, 통영시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이에 법화종은 관계부처에 △안정사 부지 불법증여 허가를 비롯한 처분 일체의 취소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담당 공직자 즉각 파면 △정부 · 지자체를 기망하고 편취한 자들에 대한 상사고소 · 고발조치 △문화재 보호 강화 조치 등을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 셔먼 美부장관 "성소수자 인권 증진 함께할 것"

## 6월7일, 미국 대사관저서 간담회
## 성소수자상징 레인보우 깃발게양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국내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권 · 종교 · 시민계 인사들과 만나 "한국 내 성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미국 정부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성소수자 인권의 달(프라이드 먼스)을 맞아 6월 7일 미국 대사관저에서 '국내 성소수자 인권 및 차별금지 보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종교계를 대표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하리수 트랜스젠더 방송인, 크리스 델 코스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리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셔먼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내 성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미국 정부도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면서 "향후 제시카 스턴 미 국무부 성소수자 인권외교 특사의 방한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관저에서 미국 국기인 성조기와 프로그레스 플래그(무지개 깃발)를 함께 게양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 불교진흥원, 하반기 4대 공모사업 실시

## 6월 27일부터 공모 진행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한국불교 진흥을 위한 하반기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공모사업은 2003년 제정돼 매년 시상하는 '대원상'을 비롯해 청년불교 활성화와 불교와 관련된 학술 · 콘텐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과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풀뿌리 불교 중흥을 위한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이다.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는 출가자와 재가자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대원상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대상에게는 2000만 원, 특별상은 1000만 원, 장려상은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제5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은 전국 대학교, 초 · 중 · 고등학교 불교동아리를 대상이며,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제4기 불교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는 불교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6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접수한다.

불교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단체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6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는 불교학술과 불교 콘텐츠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선정된 저서는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번역서는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지원되며 만화 · 동화 · 불교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는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성민 기자

# 조계종, 제주 걷기순례길 개발 박차

## 조계종 포교원, '제주 관음순례길' 리플렛 발간

### 6월 11일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 200여 명 제주 현지서 행선



재가신도 뿐 아니라 일반대중에게 사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사찰로 인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행 프로그램 '순례'를 활성화 하기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지혜의 숲길' 순례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통해 새 신행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제주 관음순례길'을 정리, 리플렛으로 발간했다.

'제주 관음순례길'은 총 세 가지 순례길로 구성되어 있다. 제1코스인 '관음사 순례길'은 관음사를 출발하여 남국사를 거쳐 제주 정부종합청사 옆 시민복지타운 광장에 도착하는 길이다.

제2코스인 '약천사,법화사 순례길'은 법화사를 출발하여 약천사에 이르는 길이다. 제3코스인 '불탑사 순례길'은 사라봉 공원을 출발하여 곤을길, 화북포구, 벌낭포구 등을 거쳐서 불탑사에 도착하는 길이다.

포교원은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교역직 스님들, 제주지역 포교사단 포교사 200여 명과 함께 6월 11일 '제주 관음순례길' 제1코스 '관음사 순례길'을 순례할 예정이다. 포교원은 "앞으로도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의 아름다운 순례길을 소개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편안한 마음,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찰을 찾아 몸과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탈핵 확산 위한 8200km 순례 대장정

## 생명탈핵로드 순례단 이원영 단장
## 8월 말, 6년 순례 바티칸서 마무리

탈핵 · 탈원전을 슬로건으로 생명 존엄성과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도보 세계 순례에 나선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단장 이원영, 수원대 교수)이 바티칸 방문을 마지막으로 26개국 8200km 순례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원영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장은 6월 8일 서울 불교여성개발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활동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생명탈핵실크로드 순례단은 탈핵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7년 5월 부처님오신날 서울에서 출발, 일본과 대만, 베트남, 라오스, 인도 등을 순례하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5년간 23개국 7000km을 걸어 독일 뮌헨에 당도했다. 순례단은 6월 25일부터 뮌헨을 시작해 알프스를 넘어 바티칸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목표는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대화로, 현재 교황청에 공문을 접수한 상태다. 앞서 이 단장은 순례과정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바르톨로메오스 정교회 수장을 만나 생명의 존엄성과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 단장은 6년간 전 세계를 순례하며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세미나 개최, 탈핵 캠페인 등을 펼쳐왔다. 탈핵 시민단체와 학자,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한 몸에 받아 지역방송과 라디오 뉴스 등에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핵과 원전은 기술보다는 윤리의 문제"라고 강조한 이 단장은 "순례를 모두 마친 후에는 매일의 과정을 기록한 일지를 토대로 백서를 출간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이면 정년을 맞는 이 단장은 "정년 후에는 탈핵 · 탈원전과 관련된 국제적 협력기구 조직화도 추구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신한은행 110-310-889298.

임은호 기자

# "'명상'으로 생명 소중함 일깨워요"

## 불교상담원, 생명살림 법회
## 7월초부터 조계사서 시작

불평등과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에게 명상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살피는 법을 알리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법회가 열린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은 6월 9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 생명살림 법회'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생명살림 법회는 불살생을 통해 생명존중 사상을 확산시키고 자살예방의 필요성 고취를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 생명살림 법회는 7월 초부터 서울 조계사, 서울 봉은사, 수원 봉녕사, 부산 범어사에서 4개월에 걸쳐 봉행된다. 법회에는 스님과 불자, 일반인, 자살 고위험군, 자살 유가족 등 28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명상을 활용한 몸 · 마음 · 쉼'을 주제로 한 이번 법회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법회로 진행된다.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고 공동체 일원으로 더불어 사는 방법을 훈련하는 화두명상, '자비희사(慈悲喜捨)'를 통해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자비심을 발현하고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무량심, 자살 고위험군의 괴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필요 시 의지처로 삼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도 · 염불 명상, 천천히 걷는 명상을 포함해 건강한 에너지를 불어 넣는 움직임 명상 등 4가지 방식이다. 법회와 함께 생명존중 리플릿 배부, 생명서약서 작성 등을 통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선업 스님은 "수년째 이어온 생명살림 법회를 통해 명상의 우수성과 탁월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불교상담개발원은 불교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자살에도 대비, 불상생을 실천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